

석유공사, 창립 32주년 기념식 개최

석유공사는 3월2일 안양 평촌 본사에서 창립 32주년 기념식을 열고 글로벌 수준의 국영 석유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강영원 사장은 창립기념사에서 2008년 이후 보유매장량 2배, 일일생산량 3배 성장을 이룩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사상 최초로 10%대로 진입하는데 큰 역할을 한 유공직원을 포상했다.

또 주요 사업목표로 ▲프론티어 지역 및 비전통석유 개발사업 진출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위기대응능력 제고 ▲글로벌 수준의 선진경영시스템·기업문화 정착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1/03/02>